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6.481>

JCCT 2024-11-60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 직업존중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with major and Job 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Nurses' Ima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김미정*, 나은하**

Mi-Jung Kim*, Eun-Ha Na**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 직업존중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J도와 G시의 2개 대학 3, 4학년 간호대학생 164명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하였고, Process macro 4.0 프로그램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r=.655, p<.001$), 전공만족도($r=.422, p<.001$), 직업만족도($r=.720, p<.001$)와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 직업존중은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을 위해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전공만족도, 직업존중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병원 환경의 개선, 간호사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 지속적인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주요어 :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전공만족도, 직업존중, 간호전문직관,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effects of nurse's image, major satisfaction, and job esteem on the nursing professional values of nursing students. This study surveyed 164 third and fourth-year nursing students from two universities. The SPSS/23.0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 independent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ediating effect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Process Macro 4.0. The result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nurse's image ($r=.655, p<.001$), satisfaction with major ($r=.422, p<.001$), and job esteem ($r=.720, p<.001$). Satisfaction in major and job esteem were found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rse's ima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o establish a proper sens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enhance positive perceptions of nurses, improve satisfaction with the major, and increase job esteem. This can be achieved through curriculum development, improvements in hospital environments, activities aimed at changing perceptions of nurses, and ongoing reforms in relevant systems.

Key words : Nurses' image, Satisfaction with major, Job esteem, Nursing professionalism, Mediating Effect

*정희원,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제1저자)
**정희원,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8월 27일, 수정완료일: 2024년 9월 25일
게재확정일: 2024년 11월 5일

Received: August 15, 2024 / Revised: September 25, 2024
Accepted: November 5, 2024
**Corresponding Author: naeh@gwangju.ac.kr
Dept. of Nursing, Gwangju Univ, Korea

1. 서 론

전문직은 전문성, 자율성, 권한, 책임감, 사회에 대한 봉사의 특징을 갖추고 인류와 사회에 봉사하는 직업을 일컫는다[1]. 간호직이 전문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간호에 대한 올바른 직업관과 함께 전문직 특성을 갖추기 위한 개인적, 조직적 노력이 필요하다.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갖추어야 할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신념과 이미지, 태도, 직업의식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며[2]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포함한 비영리적인 특성인 이타적 동기, 봉사성을 내포하고 있다[3]. 긍정적이고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간호를 제공받는 대상자 뿐만 아니라 간호사 스스로의 만족과 간호사의 사회적 위치,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된다[1]. 또한, 간호전문직관은 전인간호의 실천 핵심으로 간호에 대한 가치관과 직결되며 간호사의 입상의 사결정능력[4]과 간호업무성과[5]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이 요구되며 이에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간호사의 이미지는 간호에 대해 가지는 신념, 가치, 생각, 관념 등의 태도를 형성하는 요인으로[6]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직에 대해 갖는 인식과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는 학생들이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직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7-10]. 반면, 부정적인 이미지는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 전공학과의 부적응, 전공만족도 저하, 재학생의 중도탈락으로 이어지게 된다[11-12].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간호직에 대한 진로와 전공에 대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공만족도는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현재 소속된 학과의 인식과 교과과정 등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13]. 간호학과 학생들은 이론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는 교육과정과 국가고시라는 중압감 때문에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학업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의료직에 비해 높은 국가고시 합격률과 안정적인 취업률로 자신의 적성보다 주위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로 간호학과를 지원했다가 높은 피로와 소진으로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14].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토대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12], 높은 전공만족도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15], 이는 간호사로서의 직업 만족도와 전문직관 형성에 영향을 준다[9].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을 위해서는 진로에 대한 확신과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직업존중은 학생들이 간호사 직업에 대해 느끼는 존경과 신념, 가치를 의미한다[16]. 간호직에 대한 높은 가치평가와 기대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간호직에 대한 긍지와 헌신을 느끼게 하여 간호전문직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 책임감, 사회에 대한 봉사 등의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8]. 간호전문직에 대한 긍지와 사명감은 직업존중감을 높여주며[17],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은 높은 간호업무 수행능력과 양질의 간호를 제공뿐만 아니라 재직의도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4][17].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7-8], 전공만족도[9], 직업가치관[8]은 간호전문직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고[9], 간호직에 대한 신념과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단편적인 연구는 진행되었지만[7-10],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 직업존중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 직업존중의 매개효과를 규명함으로써 간호사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간호직에 대한 신념과 가치를 높이고,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간호교육 및 정책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그림 1>, <그림 2>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전공

만족도, 직업존중, 간호전문직관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2. 전공만족도는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3. 직업존중은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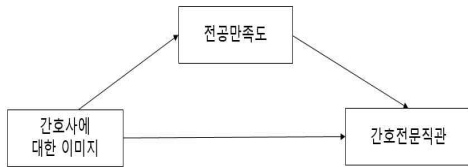


그림 1.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모형
 Figure 1. Mediating effect model Satisfaction with major between Nurses' ima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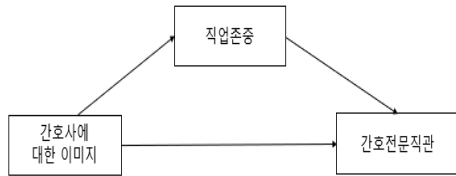


그림 2.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직업존중의 매개효과 모형
 Figure 2. Mediating effect model Job esteem between Nurses' ima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I. 본 론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전공만족도, 직업존중, 간호전문직관과의 상관관계와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 직업존중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J도와 G시에 소재한 2개 대학의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편의추출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 3.1.9 version을 사용하였다.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15, 검정력 0.95에 투입변수 8개(일반적 특성 4개, 연구변수 4개)를 적용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최소 160명이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7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169부(96.0%)를 회수하였고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5부(2.8%)를 제외한 총 164부(93.2%)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Lee와 Choi[18]이 개발한 도구를 Jang[19]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9문항으로 자질, 역할, 사회참여, 대인관계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ang[1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5$,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Ha[13]이 개발한 학과만족 도구를 Lee[20]가 전공만족 관련 18문항을 선택한 전공만족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일반만족(6문항), 인식만족(6문항), 교과만족(3문항), 교수-학생 간의 관계만족(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2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0$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2이었다.

3) 직업존중

직업존중은 Ko와 Chun[21]의 자기존중감 척도를 Park[22]이 수정·보완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으로 긍정적 가치, 상대적 효익, 사회적 평판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존중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Park[22]의 연구에서 긍정적 가치는 Cronbach's $\alpha = .72$, 상대적 효익 .70, 사회적 평판 .7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였다.

4)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eun 등[23]가 개발하여 Han 등[24]이 수정·보완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9문항으로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계의 역할, 간호의 독자성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Han 등[2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4$, 본 연구에서는 .90였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J도와 G시에 소재한 2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설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만 온라인 링크를 문자로 전송하였다. 연구 설명문과 참여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자발적 참여와 철회 가능, 익명성, 비밀보장을 포함하여 연구 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설명하였다. 연구 설명문과 참여동의서의 내용에 동의한 대상자만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전공만족도, 직업존중,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전공만족도, 직업존중,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로 분석하고, 사후 검정으로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이용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 직업존중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5]가 제안한 PROCESS Macro program의 모델 4번을 이용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접근법으로, re-sampling 횟수를 5,000회,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여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4.47±3.15세로 23~25세가 69명(42.1%), 22세 이하가 61명(37.2%), 26세 이상이 34명(20.1%) 순이었다. 성별은 여자가 136명(82.9%), 남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전공만족도, 직업존중, 간호전문직관의 정도

Table 1. Differences of Nurses' image, Satisfaction with major, Job esteem, Nursing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64)

Variable	Categories	n(%)	Nurses' image		Satisfaction with major		Job esteem		Nursing professionalism	
			M±SD	t or F(p) Scheffé	M±SD	t or F(p) Scheffé	M±SD	t or F(p) Scheffé	M±SD	t or F(p) Scheffé
Age (year)	≤22 ^a	61(37.2)	3.93±0.35	3.343 (.038) (a>c)	4.34±0.58	0.797 (.453)	4.09±0.51	2.129 (.122)	3.83±0.54	1.636 (.198)
	23-25 ^b	69(42.1)	3.65±0.40		4.25±0.62		3.87±0.63			
	≥26 ^c	34(20.7)	3.51±0.50		4.17±0.69		3.90±0.76			
Sex	Man	28(17.1)	3.51±0.41	-2.110 (.036)	4.22±0.63	-0.399 (.690)	4.04±0.45	0.752 (.453)	3.58±0.61	-2.280 (.054)
	Female	136(82.9)	3.69±0.40		4.27±0.62		3.94±0.65		3.87±0.61	
Grade	Junior	68(41.5)	3.77±0.35	3.013 (.003)	4.40±0.59	2.445 (.016)	4.12±0.51	2.873 (.005)	3.88±0.56	0.934 (.352)
	Senior	96(58.5)	3.58±0.43		4.17±0.63		3.84±0.67		3.79±0.65	
Motivation for applying to nursing major	High employment rate ^a	87(53.0)	3.57±0.45	4.854 (.004) (a<c)	4.25±0.74	3.065 (.049) (b<c)	3.89±0.69	2.095 (.126)	3.79±0.68	1.098 (.336)
	Recommendation from others ^b	43(26.2)	3.72±0.31		4.13±0.33		3.96±0.51		3.79±0.40	
	Aptitude & interest ^c	34(20.7)	3.80±0.36		4.48±0.50		4.15±0.53		3.96±0.66	

자가 28명(17.7%)였으며 4학년이 96명(58.5%), 3학년이 68명(41.5%)이었다.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높은 취업률이 87명(53.0%), 적성과 취미가 43명(26.2%), 주위의 권유가 34명(20.7%) 순이었다<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연령($t=3.343, p=.038$), 성별($t=-2.110, p=.036$), 학년($t=3.013, p=.003$), 간호학과 지원 동기($F=4.854, p=.004$)에, 전공만족도는 학년($t=2.445, p=.016$), 학과 지원 동기($F=3.065, p=.049$)에, 직업준중은 학년($t=2.873, p=.005$)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26세 이상보다 22세 이하에서, 간호학과 지원 동기가 높은 취업률보다 적성과 흥미로 지원한 집단에서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간호학과 지원동기가 주위의 권유보다 적성과 흥미로 지원한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1>.

2.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전공만족도, 직업준중, 간호전문직관의 정도

대상자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4.10점(5점 만점), 전공만족도는 4.26점(5점 만점), 직업준중 4.23점(5점 만점), 간호전문직관은 3.82점(5점 만점)이었다.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의 하위영역은 역할이 4.19점, 대인관계 4.17점, 자질 4.15점, 사회참여 3.89점 순이었고, 전공만족도는 학과과정만족이 4.31점, 능력 발휘 및 취업기회만족이 4.17점이었다. 직업준중은 긍정적 가치 4.41점, 사회적 평판이 4.24점, 상대적 효의 4.02점 순이었다<표 2>.

3.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전공만족도, 직업준중,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r=.655, p<.010$), 전공만족도($r=.422, p<.001$), 직업준중($r=.720,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준중은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r=.690, p<.010$), 전공만족도($r=.617,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전공만족도는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r=.395, p<.010$)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즉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준중감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가설 1은 지지되었다<표 3>.

표 2.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전공만족도, 직업준중, 간호전문직관의 정도

Table 2. Degree of Nurses' image, Satisfaction with major, Job esteem, and Nursing students (N=164)

Variables	Range	M±SD	Skewness	Kurtosis
Nurse's images	1-5	4.10±0.45	-.38	.25
The qualification of nurse		4.15±0.51	-.43	-.20
The role of nurse		4.19±0.52	-.26	-.70
The social participation of nurse		3.89±0.48	.08	-.35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e		4.17±0.62	-.69	.46
Satisfaction in major	1-5	4.26±0.62	-.78	.64
Satisfaction with curriculum		4.31±0.71	-.82	-.26
Ability and opportunity getting		4.17±0.75	-.71	.28
Job-esteem	1-5	4.23±0.65	-.89	.92
Positive value		4.41±0.71	-1.36	1.92
Relative benefit		4.02±0.82	-.79	.57
Social reputation		4.24±0.63	-.64	.12
Nursing professionalism	1-5	3.82±0.62	.28	-.77

표 3.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전공만족도, 직업준중,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among Nurses' image, Satisfaction with major, Job esteem,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164)

Variables	F1	F2	F3	F4
	r(p)	r(p)	r(p)	r(p)
Satisfaction with major	.395 (<.001)	1		
Job esteem	.690 (<.001)	.617 (<.001)	1	
Nursing professionalism	.655 (<.001)	.422 (<.001)	.720 (<.001)	1

† F1=Nurses' image, F2=Satisfaction with major, F3=Job esteem, F4=Nursing professionalism

4.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대상자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5]가 제안한 PROCESS macro에서 model 4를 사용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

스트랩 샘플 5,000개로 지정하였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와 <그림 3>과 같다.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beta=.595, p<.001$), 전공만족도는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beta=.174, p=.004$)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사이에서 매개하였다. 즉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총 효과는 $\beta=1.034(p<.001)$ 이었으나 매개변수인 전공만족도가 투입되면서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의 직접 효과는 $\beta=.930(p<.001)$ 로 감소하여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지지되었다.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였고, 검증 결과 부트스트래핑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서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검증되었다(<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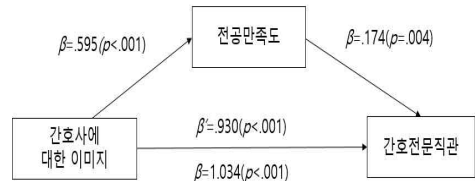


그림 3.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Figure 3.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with major between Nurses' ima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표 4.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전공만족의 매개효과

Table 4.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with major between Nurses' ima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164)

Variables	β	S.E	t	p	95% CI	
					LLCI	ULCI
Nurses' image → Satisfaction with major	.595	.108	5.472	<.001		
Satisfaction with major → Nursing professionalism	.174	.059	2.920	.004	.056	.292
Nurses' image → Nursing professionalism	.930	.090	10.339	<.001	.752	1.108
Nurses' image → Satisfaction with major → Nursing professionalism	1.034	.084	12.228	<.001	.867	1.201
F=149.545, R ² =.480						
Mediating effect significance verification						
	Effect	Boot SE	95% CI			
			Boot LLCI	Boot ULCI		
Total Effect	1.034	.084	.867	1.201		
Direct Effect	.930	.090	.752	1.108		
Indirect Effect	.103	.049	.013	.209		

5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직업존중의 매개효과

대상자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직업존중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5]가 제안한 PROCESS macro에서 model 4를 사용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샘플 5,000개로 지정하였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와 <그림 4>과 같다.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직업존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beta=1.082, p<.001$), 직업존중은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beta=.567, p<.001$)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사이에서 매개하였다. 즉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총 효과는 $\beta=1.037(p<.001)$ 이었으나 매개변수인 직업존중

이 투입되면서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간호사의 이미지의 직접 효과는 $\beta=.567(p<.001)$ 로 감소하여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도 지지되었다.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였고, 검증 결과 부트스트래핑의 상한값과 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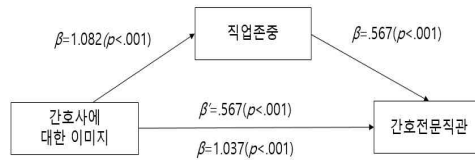


그림 4.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직업존중의 매개효과

Figure 4. Mediating effect of Job esteem between Nurse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표 5.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직업존중의 매개효과

Table 5. Mediating effect of Job esteem between Nurses' ima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164)

Variables	β	S.E	t	p	95% CI	
					LLCI	ULCI
Nurses' image → Job esteem	1.082	.082	13.076	<.001	.919	1.246
Job esteem → Nursing professionalism	.434	.071	6.104	<.001	.293	.575
Nurses' image → Nursing professionalism	.567	.107	5.280	<.001	.355	.779
Nurses' image → Job esteem → Nursing professionalism	1.037	.082	12.533	<.001	.874	1.201
F=157.096, R ² =.493						
Mediating effect significance verification						
	Effect	Boot SE	95% CI			
			Boot LLCI	Boot ULCI		
Total Effect	1.037	.082	.874	1.201		
Direct Effect	.567	.107	.355	.779		
Indirect Effect	.470	.064	.236	.612		

값 사이에서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검증되었다<표 5>.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전공만족도, 직업존중이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와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 직업존중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4.10점(5점 만점)으로 중간 이상 수준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Jeong[26]의 연구에서 4.07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Lee, & Kim[27]의 연구에서 3.99점, 임상실습을 8학점 이상 이수한 3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15]의 연구에서 3.80점으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령, 학년, 임상실습 경험 유무, 실습환경의 특성, 사회적 분위기, 간호사의 업무환경에 대한 인식 등의 다양한 요인이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물에 대한 이미지는 그 대상의 발전이나 사회적 위치를 형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직업의 정체성 확립과 전문직 사회화뿐만 아니라 미래 간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28]. 따라서 간호사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과 특성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의 하위영역은 역할과 대인관계 점수가 높게 나타나 전문직으로서 간호사의 이미지

가 높게 나타난 연구[8][26]와 일맥상통한다. 간호직에 대한 의사의 보조적 역할 수행이라는 왜곡된 인식과 간호의 가치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등이 일부 남아 있지만[29], 최근 COVID-19, 의료대란 등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감 등이 간호전문직으로서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26][30]. 이미지는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험이나 정보에 의해 부단히 생성되고 변화되므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도 긍정적인 경험과 정보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31]. 따라서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을 위해 간호단체는 간호전문직의 역할과 사회적 기여를 꾸준히 알리고 간호정책의 제도적 마련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30]. 또한, 간호대학에서는 교육과정을 통해 숙련된 전문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간호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9][28].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연령, 성별, 학년, 간호학과 지원 동기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령이 어릴수록, 임상실습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적성과 흥미에 따른 전공 선택의 경우 간호사 이미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7][9][32] 결과와 일치하였다.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신념과 긍지를 갖게 하고[26] 올바른 간호 전문직관[7][9]과 나아가 간호역량[33], 간호업무성과[5]로 직결된다. 따라서 간호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한 연구와 저학년때 형성된 긍정적인 간호사의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간호교육과 간호사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경험할 수 있는 임상실습 환경의 조성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

다.

전공만족도는 4.26점(5점 만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9][34]에서 3.92~4.18점으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중상 이상의 수준임을 의미한다. 전공만족의 하위영역은 본 연구에서는 학과과정 만족이 능력 발휘 및 취업기회 만족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Son[35]의 연구에서는 능력 발휘 및 취업기회 만족이 더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는 현재 의료계의 문제로 인해 졸업을 앞둔 간호대학생들의 대형병원 취업기회가 감소하였고 취업에 대한 불안과 취업을 통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불확실해지면서 능력 발휘 및 취업기회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4학년보다 3학년이 높게 나타났고, 학과 지원 동기가 주위의 권유보다 적성과 취미로 지원한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의 학과 지원 동기 비율을 살펴보면 적성과 취미가 20.7%인데 반해 높은 취업률이 53.0%로 취업 보장에 대한 기대로 간호학을 선택했으나 현재 의료현장의 사회적·환경적 특성이 특히 4학년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불안과 전공만족도 저하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직업존중은 4.23점(5점 만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6][35]에서도 3.65~3.97점으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직에 대한 가치평가 또는 미래의 직업으로서의 기대수준이 중상 이상의 수준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직업존중의 하위영역은 긍정적 가치와 사회적 평판이 가장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35]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은 간호직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직업을 통해 자기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사회에 공헌하고 가치 있는 직업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높은 직업가치관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8], 간호사의 간호직에 대한 직업존중감이 증가할수록 직무에 대한 열의[36]와 재직의도도 높아진다고 하였다[17]. 직업에 대한 가치관과 직업존중은 개인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환경 등에 영향을 받으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37]. 따라서 학생시절부터 직업존중감을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더불어 간호직에 대한 직업존중이 취업 후 간호 현장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저해 요인과 문제점을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존중은 3학년에 비해 4학년이 자기 직업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평가나 기대 정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16]. 임상실습의 부정적인 측면이 직업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8] 결과를 미루어 볼 때 현재 혼란스러운 의료환경이 간호직에 대한 평가와 기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4학년의 경우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대형병원들이 강제 무급 휴가, 병동 폐쇄, 신규간호사 미채용 등의 취업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으로 졸업유예나 휴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38]. 간호직에 대한 낮은 존중감은 직업에 대한 불만을 초래하고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직 선택의 감소와 이탈을 초래한다[39].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가치있는 전문직업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간호협회와 정부는 간호사 취업 지원과 처우 개선 등의 정책 마련과 무리한 간호대 증원의 재고, 병원환경의 개선의 노력이 요구되며 학교는 올바른 직업존중을 갖출 수 있도록 학부교육과정의 운영이 필요하겠다.

간호전문직관은 3.82점(5점 만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7][34][40]에서 3.71~3.98점으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으로서의 가치관이 중상 이상의 수준임을 의미한다.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간호사의 현장 실무 능력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역할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간호역량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33].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간호사는 대상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간호업무 수행 능력이 더 높은 성과를 보였으며, 이는 조직성과로 이어지게 된다[33]. 따라서 간호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과 사회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간호전문직관의 확립 교육과 다양한 실습 경험의 제공, 전문직 윤리 및 가치 교육, 전문학회나 세미나 참여를 통한 최신 지식의 습득 기회 제공,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학교, 병원조직, 간호협회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전공만족도, 직업존중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전공만족도, 직업존중, 간호전문직관의 통합적인 관계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간호대학생이 간호사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간호직에 대한

높은 가치평가와 기대를 갖게 되고[26] 전공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며[9], 자신의 직업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의 형성은 간호전문직관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연구[8][10]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직업존중, 전공만족도는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간호직에 대한 자부심 및 존중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세미나나 강연을 통해 롤 모델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임상 실무 현장에서 긍정적인 경험의 제공을 통해 간호사 이미지를 개선하고, 현직 간호사와의 멘토링 제도를 통해 실무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직업윤리와 간호의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 통해 간호전문직관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겠다. 병원 측면에서는 간호사들이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절한 간호 인력 배치, 탄력적 근무시간, 적절한 보상 체계를 도입과 간호직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홍보 활동의 강화가 필요하겠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간호사 자격과 지속적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성 인증 제도와 지속적인 교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겠다.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전공만족도를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간호전문직관에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7-8], 전공만족도[9][15][34]가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즉,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을 위해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과 다채로운 역할과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임상실습 기회의 제공,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운영이 필요하겠다.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서

직업존중의 부분매개효과도 확인하였다. 동일한 변수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의 이미지와 전공선택동기가 직업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26],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와 직업가치관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다는 연구[8] 결과와 유사하다. 즉,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간호전문직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신의 간호직에 대한 직업존중이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사이의 영향을 일부 매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할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증진시킬수 있는 간호교육과 전문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실습환경의 구축, 간호사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전공만족도, 직업존중,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 직업존중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여 간호전문직관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존중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또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 직업존중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가설 2, 3도 지지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네 변인과의 통합적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 직업존중의 매개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을 위해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전공만족도, 직업존중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학교의 교육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병원, 협회, 정부의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 학교 차원에서는 간호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졸업생이나 현직 간호사와의 멘토링 제도, 다양한 간호사의 역할과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병원 차원에서는 간호사와 간호학생들

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과 직업 존중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협회 차원에서는 간호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요구되며, 정부 차원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과 법제화 등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연구 대상이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제한점을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추후 대상과 지역, 학년 등을 확대한 반복연구의 시행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모형의 잠재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나 변인들의 하위영역과의 관계를 설정하지 않아 후속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잠재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9][26-28][31], 전공만족도 [9][34-35]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도구로 연구결과의 정확성과 관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후 타당도 검증 연구의 시행을 제언한다. 넷째,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전공만족도, 직업 존중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의 시행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M.S. Jung, E.K. Kim, S.Y. Kim, J.K. Kim, E.J. Park et al, "Nursing management," Seoul, Hyunmoonsa, 2023.
- [2] D. Weis, and M.J. Schank, "Toward building an international consensus in professional values," Nurse Education Today, Vol. 17, No. 5, pp, 366-369, 1997. DOI : 10.1016/S0260-6917(97)80096-2
- [3] J.R. Han, "The mediated effects of self-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20, No. 1, pp. 437-443, 2022. DOI : 10.14400/JDC.2022.20.1.437
- [4] S.H. Kim, and H.O. Park, "Effects of ego-resili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mpathy on clinical competency of general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6, No. 2, pp, 101-110, 2020. DOI : 10.5977/jkasne.2020.26.2.101
- [5] M.H. Choi, and M.S. Lee,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empathy, and positive psychology competencies on nursing performance in clinical nurses," 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Vol. 10, No. 2, pp, 515-525, 2024. DOI : 10.47116/apjcri.2024.02.40
- [6] E.J. Yun, "A study on professional nursing image of nursing unit manger: Q-methodology approac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1995.
- [7] K.W. Jung,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nurse image and self-leadership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Wholistic Nursing Science, Vol. 11, No. -, pp, 31-40, 2018.
- [8] Y.M. Jang, "The influence of nursing image, job value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first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Vol. 17, No. 3, pp, 31-38, 2019. DOI : 10.22678/JIC.2019.17.3.031.
- [9] K.E. Lee, and I.S. Seo, "The effects of calling, nurse's image,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efficacy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Vol. 28, No. 1, pp, 37-47, 2022. DOI : 10.5977/jkasne.2022.28.1.37
- [10] J.G. Kim, "A systemic review of literature in clinical practice research for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10, No. 3, pp, 39-46, 2022. DOI : 10.17703/IJACT.2020.10.3.39
- [11] J.S. Jung, M.J. Jeong, and I.Y. Yoo,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Vol. 20, No. 1, pp, 27-36, 2014. DOI : 10.5977/JKASNE.2014.20.1.27
- [12] H.S. Kim, G. Park, and H. Kang, "The relationship among satisfaction of majo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nurse image f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5, No. 2, pp, 263-270, 2019. DOI : 10.17703/JCCT.2019.5.2.263
- [13] H.S. Ha, "A study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004.
- [14] U.A. Kim, "Living as a nursing college students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4, No. 3, pp,

- 20–23, 2016. DOI : 10.17703/IJACT.2016.4.3.20
- [15] Y.J. Kim,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communication skills, image of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14, No. 8, pp, 265–276, 2020. DOI : 10.21184/jkeia.2020.12.14.8.265
- [16] D.G. Miller, “Effect of value-based Traininh on job-esteem and hospitality values of front-line Hotel employees,” Unpulished Doctoral disseration, The University of Utah, Saly Lake City, United of America, 1999.
- [17] Y.N. Lee, and E.K. Kim, “Effects of nursing work environment on intention to stay of Hospital nurses: A two-mediator serial mediation effect of career motivation and job-estee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53, No. 6, pp, 622–634, 2023. DOI : 10.4040/jkan.23038
- [18] H.R. Lee, and K.O. Choi, J.E. Ko, M.R. Hong, S.Y. Kim, and H.S. Shin, “Survery on nurse’s image,” *Journal of Kyung Hee Nursing research*, Vol. 15, No. -, pp, 45–62, 1992.
- [19] S.H. Jang, “Survery on nurse’s imag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1988.
- [20] D.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4.
- [21] D.W. Ko, and B.G. Chun, “The concept and measurement scale of job-esteem: The case of undergraduates majoring tourism studies,” *Journal of Tourism Science*, Vol. 26, No. 3, pp, 279–297, 2002.
- [22] H.J. Park, “The study of job-esteem and training effectiveness through enterprise education: Focused on the air service majors,”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2004.
- [23] E.J. Yeun, Y.M. Kwon, and O.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 6, pp, 1091–1100, 2005.
- [24] S.S. Han, M.H. Kim, and E.K. Yun,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4, No. 1, pp, 73–89, 2008.
- [25] A.F. Haye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2nd ed.),”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26] K.S. Jeong, “Influence of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and nurse’s image on job-estee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4, No. 6, pp, 166–173, 2023. DOI : 10.5762/KAIS.2023.24.6.166
- [27] M.H. Lee, and Y.S. Kim, Influence of nurse’s image and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major on their career identity: The mediating effect of professional self-concep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8, No. 3, pp, 248–258, 2022. DOI : 10.5977/jkasne.2022.28.3.248
- [28] H.S. Jeong, and Y.S. Yoo, “Image of nurses a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d image determina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24, No. 1, pp, 29–38, 2010.
- [29] Y.J. Lee, “Exploratory study on current nursing issues in the COVID-19 era through newspaper articles: The application of Text Network analysi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28, No. 3, pp, 307–317, 2022. DOI : 10.11111/jkana.2022.28.3.307
- [30] J.S. An, “Analysis of image nurse on articles in Korean daily newspaper after Corona Pandemic,”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1, pp, 66–74, 2021. DOI : 10.17703/JCCT.2021.7.1.66
- [31] J.Y. No, S.J. Park, and D.Y. Bae,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self-efficacy and nurse’s imag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18, No. 2, pp, 88–94, 2012.
- [32] E.H. Joo, J.L. Ryu, and S.H. Kim,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work value on major commit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n nurses’ imag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5, No. 2, pp, 11–21, 2021. DOI : 10.34089/jknr.2021.5.2.11
- [33] E.H. Cho, Y.J. Ha, “The effect of innovative behavior, creativity, nursing professionalism on nursing competence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5, No. 2, pp, 82–92, 2024. DOI : 10.5762/KAIS.2024.25.2.82
- [34] S.K. Yang, Y.J. Yang, and E.J. Koo, “The effect of grit, major satisfaction, occupational value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3, No. 15, pp, 215-224, 2023. DOI : 10.22251/jlcci.2023.23.15.215
- [35] B.H. Son, Y.M. Kim, and I.G. Jun, "A study nursing students' job-esteem, work values, and satisfaction of their major,"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20, No. 3, pp, 240-249, 2011. DOI : 10.5807/kjohn.2011.20.3.240
- [36] H.S. Heo, "Hospital nurses' job-esteem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effect on job engagement," Master's thesis, Je-ju University, Je-ju, 2023.
- [37] L. Cennamo, and D. Gardner, "Generational differences in work values, outcomes and person-orgnaization values fit," Journal of Managenial Psychology, Vol. 23, No. 8, pp, 891-906, 2008.
- [38] M.J. Park, "The doctor strike affects nursing students: "We're not hiring" Facing employment challenges, many are taking a leave of absence, [2024 July 0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70315483369951>
- [39] K.L. Jung, "Factors affecting the job-esteem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Safety Culture, Vol. -, No. 14, pp, 1-15, 2021. DOI : 10.52902/kjsc.2021.14.1
- [40] H.K. Lee, Y.S. Choi, J.S. Kim, M.S. Kim, C.Y. Jeon, C.Y. Cho, and Y.J. Heo, "The influence of calling and self esteem on nursing professionals of nursing students," 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6, pp, 563-571, 2023. DOI : 10.17703/JCCT.2023.9.6.563

※ 이 연구는 2024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